

비타민 · Lysine 가격카르텔 조사

공정위, 가격담합 · 거래량 조절혐의 … 흑연전극봉 11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Vitamin C 또는 Lysine 가격담합 카르텔 혐의를 잡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 및 처벌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및 EU가 국내기업을 국제카르텔 혐의로 조사해 거액의 벌과금을 부과한데 적극 대응해 Vitamin 및 Lysine 가격담합 및 거래량 조절, 거래처 조정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기업 7사가 국제카르텔 관련 총 4건에 대해 약 103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납부했거나 소송중인데 대응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라이신 및 핵산조미료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제일제당 등 국내 3사에 대해 약 6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의 국제카르텔 벌금 부과현황

부과사유	부과시기	해당기업	벌금 부과액	납부현황
Lysine 가격 담합	1996. 8	제일제당	125만달러(약 16억3000만원)	1999. 8 완납
		세원 America	30만달러(약 3억9000만원)	1999.11 완납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2001. 8.	제일제당	300만달러(약 39억원)	납부예정
		대상 Japan	9만달러(약 1억2000만원)	납부예정
합 계			464만달러(약 60억4000만원)	

EU 경쟁당국도 기업결합 신고위반, 해운운임 및 라이신 가격담합에 참여한 국내기업 6사에 대해 7500만 Euro(약 9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U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관련 벌금 부과현황

벌금 부과사유	부과시기	해당기업	벌금 부과액	납부현황
기업결합 사전승인 신청 지연	1998. 2	삼성전자	33,000ECU(약 3200만원)	납부완료
우월적 지위남용/ 운송료 담합	1998. 9	한진해운	2,063만ECU(약 288억원)	소 송 중
		현대상선	1,856만ECU(약 259억원)	//
		조양상선	1,375만ECU(약 192억원)	//
운임 할인거부 담합	2000. 5	한진해운	62만Euro(약 6억원)	//
		조양상선	13만4000Euro(약 1억원)	//
Lysine 가격담합	2000. 6	제일제당	1,220만Euro(약 131억원)	//
		세원	890만Euro(약 94억원)	//
합 계			7,482만7000Euro(약 971억원)	

공정거래위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흑연전극봉을 수출하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국내 전기로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제카르텔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쟁당국이 경쟁법 역외적용을 통해 국제카르텔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미국, 일본, 독일의 6개 기업이 1992-98년 수차례 회합을 통해 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1837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해 총 112억4200만원(853만2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